

# 사설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간성을 시가지의 전봇대를 없애고 전기와 통신선을 지하에 매립하는 '간성을 시가지 지중화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 구간은 신안리 병천순대~상리 대영자동차정비까지 1,680m 구간이며, 이미 확보된 예산 41억원 가운데 고성군이 예산의 절반을 내고, 한전과 통신사가 나머지 절반을 대기로 하는 등 사업 개요도 확정된 상태다.

그런데 지난 12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중대성에 비해 참석자가 극히 적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장들과 간성읍변영회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실제 참석한 주민은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제외할 경우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4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3월부터 7월까지 간성을 시가지의 도로 한쪽과 보도 한쪽을 굴착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주민들의 관심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 주민들은 생계로 바빠서

그렇다고 쳐도 이장들이나 변영회 관계자들은 주민을 대표해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설명회에서는 특히 가로 1m30cm 세로 1m20cm 크기의 배전함이 들어설 12곳의 위치까지 발표됐다. 군 관계

자는 앞으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했지만, 상가지역에 배전함이 들어설 경우 건물주는 물론 현재 장사를 하는 상가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로 속초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가들이 상당히 오

랜 기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과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공사기간 중에도 차량통행과 보도 이용에 큰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다. 특히 공사가 늦어져 7월을 넘길 경우 피서차량들로 인해 더욱 북비면서 짜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이날 설명회에서 이런 여러 가

지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군에서 사업 착수를 수개월 앞두고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만큼, 설명회를 통해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했다. 나중에 공사가 착공되고 심지어는 완공이 코앞인 시점에서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행정에서 비밀리에 일을 추진한 경우라면 몰라도, 공개적인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주민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주민의 모습이 아니다. 행정에서 앞으로 설명회 자리를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음부터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주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한다.

## 지중화사업 설명회 참석 저조 문제

### 남숙희 칼럼

칼럼위원(시인)



### 문학기행

지난달 '사색의 향기' 문화원에서 '제 60회 문인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에 참가해 경기도 수원 화성엔 다녀왔다.

아침 8시,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광버스 타고 달리는 경부고속도로의 아침은 싸락눈이 약간씩 내리는 그야말로 12월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한잔의 커피를 마시고 싶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사색의 향기 문화원에서는 작가들의 생가와 생터, 시비, 묘소, 사적비, 고택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생전에 남긴 업적을 따라 문학기행을 했다.

서정주, 한용운, 허균, 김삿갓, 이효석, 윤선도, 박목월, 정철, 황순원, 이순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인들의 문학적 발자취를 따라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빠짐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화성에는 노작 홍사용의 문학관이 있었

다. 노작 홍사용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빛낸 민족시인이다.

그의 문학관은 '시민과 함께 문학으로 여는 미래'란 슬로건으로 모든 공간을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었다.

아파트 숲이 밀집한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명문인 초청, 특강, 문화공연, 문예강좌, 문학현장체험, 연극동아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화성 시민을 위한 문화 충전소였다.

오후에는 자그마한 레스토랑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시인들의 시낭송도 있었다. 시인이라 명명되어진 나도 서정주의 '푸르른 날'이란 시를 읊었다.

갑자기 감정이 상승되어 고교시절 여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 되었으며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 물결처럼 일렁거렸다.

### 함께 가는 길

- 문학기행 60회에 부쳐 -

백승훈

책속으로 난 길을 따라  
저마다 끌고 온 생을 잠시 내려놓고  
그윽한 문자향에 몸을 적시면  
친구여  
세상은 정녕 아름다운 꿈속이더라

저마다  
살아온 세월은 다들지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동행이 되어  
정갈한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가면  
우리 가슴에는 푸른 강물 하나  
출렁이며 흘러가리니

우리들에게 길라잡이 소개를 해준 백승훈 시인은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성년이 될 때까지 산골마을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았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어느 봄날 배나무 과원에 놀러 갔다가 배나무 아래 무리지어 핀 흰 냉이꽃에 넋을 빼앗겼다.

그후로 십년넘게 야생화를 찾아 전국을

어느덧 빛나던 청춘은 추억이 되고  
찬 서리 몰아치는 생의 가을이 와도  
우리 함께하는 동안에는  
이 세상 눈길 닿는 곳마다  
꽃피지 않는 것이 더디 있으랴

세상의 길 위에서  
우리의 들숨날숨이 꽃으로 피고  
마주잡은 손길이 하나의 강물로 어우러지는  
사색의 향기 문. 학. 기. 행.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 인생의 봄날이 아니겠는가.

돌아다니며 '꽃에게 말을 거는 남자'로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생의 어느 하루를 침표를 찍으면서 즐긴 하루였다.

문학이란 곧 우리생활의 반영이다. 윤기 있게, 알차게 살아가는 지혜를 날마다 배우면서 살고 싶다.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국에서

오는 23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다.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한때 정부가 '신정'이라고 해서 양력 1월 1일을 새도록 정했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음력

1월 1일을 진정한 설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신정을 없애기도 했다.

아무쪼록 이번 설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한데 어울려 떡국을 먹으며, 가정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